

양돈기술개발에 전력 기울일때



천 중 인 소장
(축산기술연구소)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생산한 돼지고기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일본 시장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 등의 구미선진국 돼지고기들과 당당하게 품질과 가격 경쟁을 벌리고 있는 중이다.

수출을 한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료산업, 시설 방역산업 및 도축 가공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은 세계 1등 제품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수입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WTO, 즉 세계 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양돈 산업도 세계화의 일원이 되었고 더 한층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양돈사업이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기까지는 우리 양돈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분노에 대한 민원증가와 인력난, 그리고 돼지생산과 관련된 간접비용 증가에 의한 생산 비용의 증가 등은 양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생체 1kg당 돼지생산비를 20% 정도를 낮추어 1,000원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이 밝혀지고 있어 양돈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는 농가도 다수가 있다.

그러나 돼지생산성이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돼지 생산성보다 20% 이상 높으면서, 시설개선 및 자가노력에 의한 인건비를 줄이고 협업 또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에 생체 1kg당 생산비를 1,000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농가도 있음을 볼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어느 축산업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WTO체제가 출범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부대조건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난 30년동안 기울였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축산연구를 좀 더 집약화 하고 체계화 하고자 농림수산부 산하의 국립 종축원과 농촌진흥청 소속의 축산시험장 및 고령지 시험장의 축산과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발족하였는 바, 양돈에 대한 기초연구는 축산기술부가 담당하고 응용연구는 종축개발부가 담당하여 새로운 선진 양돈기술의 수용과 개발을 하게 되었고 양돈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비절감은

국제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우수종돈 개량 및 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간중돈장 및 도립중축장과 연계하여 주요 품종에 대한 계통별 핵돈군 4천두와 핵돈 증식돈군 4만두를 조성하여 일반 중돈장과 비육농가에 보급하는 피라미트 형태의 돼지개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수정기술 보급과 함께 우수정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액상 정액 공급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수 유전인자 이식, 성감별 정액생산 등 최신 유전공학 기술 개발과 활용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질병 감염원이 최소화된 중돈생산을 위해 투약후 조기이유기술을 완성하고 아울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격리조기이유 새끼돼지 생산기술도 확립할 계획이다.

둘째, 고품질 규격 수출돼지 생산 기술확립인데,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사양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한 실증연구를 수출 돼지생산농가와 연계 추진하여 현장기술로 정착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수출돼지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생산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와함께 능력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을 규명하여 출하 체중차가 크지 않는 균일한 규격의 수출돼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생리조절에 의한 저지방 고품질 돼지고기생산과 우리 입맛에 맞는 기호성 돼지고기 생산 및 육가공제품 개발연구도 계속할 계획이다.

셋째, 효율적인 돈분뇨처리기법, 돈사 및 시설 개발인데, 이를 위해 돈분뇨는 유기질비료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 우리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설치비가 저렴하고 정화효율이 높은 정화시설과 비료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으며 돈사 및 시

설도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생력 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가 제시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하면 2001년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1만3천여호 농가에서 710만두를 사육하고, 이중 규모화된 전업농 5천호에서 80% 이상을 사육하게 되며, 계열화 체계에서 생산된 돼지를 선진화된 도축센터에서 위생적으로 처리가공하여 브랜드화 된 돼지고기가 냉장 체계화에서 차등가격제로 판매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사실 어미돼지 100두, 상시 사육두수로 1,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는 전업양돈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4~5 억원은 투자되어야 하는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돼지사육농가도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단일한 비과학적, 비합리적 경영체계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양돈경영을 추구하려는 양돈경영인의 자세로써 고도의 생산기술 하에서 최저의 생산비로 최고급의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생산자가 가공, 유통, 수출까지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고 있는 덴마크 등 양돈선진국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의 모든 양돈농가도 협업과 계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품질의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여야겠다.

국내의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제경쟁까지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되지만 한다면 평평대롤가 우리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양돈농가와 양돈 관련 산업계 및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 한층 양돈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